

향기로운 예물

♣ 심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경,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경, 홍길동성탄)

♣ 선교헌금

강영성(신화순) 공인석(김명숙) 김경성(김해숙) 강순석(임영덕)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박승현 박종삼(이명환) 방석태(차옥자) 배경철(김순화) 성미영(박영식) 안금자 오영순 윤승한(민옥희)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상희 이종문 이태일(송백현) 이한웅(김순옥) 이향교 임만순(서영숙) 채만기(장은주) 천영란 최정규(김미영) 최정순 황상근

♣ 감사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최유경 강영성 김경엽(손정아) 김병을(이영숙) 김순옥(이한웅) 김정연B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김춘희 맹지혜 박권제(송명숙) 박영숙(김종선) 박종삼(이명환) 방복순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송다해 오동호(강소영)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미지 이오순(김형국) 이종문 장예준 전계자 전순봉 조규래 채명엽 채희진 최성현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아린 김이안 김준구 무명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승현 박준홍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윤 이미지 이상희 이상희 이소은 이송애 이아란 임윤정 정서연 정영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최효자 하세린 홍은민 홍준민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08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요엘 1장 13절 ~ 20절		
월요일	요엘 2장 1절 ~ 17절	목요일	요엘 3장 14절 ~ 21절
화요일	요엘 2장 18절 ~ 32절	금요일	시편 42편 1절 ~ 11절
수요일	요엘 3장 1절 ~ 13절	토요일	시편 43편 1절 ~ 5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양대	지 위 자	할 벨 루 야 : 김한나 시 온 : 권혜정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지에빈 김민지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리스트	이수경 권혜정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홍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맥 시 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활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4.02.18.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	
마가복음 2장 1~12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겨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에게 직접 손까지 대시며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라고 전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께로 데려온 당사자는 그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들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네 사람을 앞장세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결국 비상 수단으로,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병자를 침상 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이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랑의 믿음을 보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 **예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입니다.

-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장소는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베드로 장모의 집일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가버나움을 가리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수일 동안 다른 동네에서 전도하시다 다시 가버나움의 집, 곧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족들이 사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소문을 듣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중에 갑자기 지붕이 뚫렸습니다. 그러고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병상이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모두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네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예수님의 집 지붕을 파손했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요한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네 사람이 과감하고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환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는 부정한 나병환자에게 직접 당신의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 수많은 각색 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셨다는 바로 그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황당한 무례를 그들의 믿음으로 여겨 용납해 주셨고,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무력하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 예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소망을 주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의 지체와 이웃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자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예수님 집 앞에 운집한 수많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많은 사랑을 헤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파가 흩어질 때를 기다리거나 다른 기회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에게는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보낸 사람들의 간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네 사람은 그들을 택하여 보낸 사람들의 부락에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절실히 바랐던 그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시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뚫어서까지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끈질긴 믿음을 주님께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끈질긴 기도가 곧 믿음**이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하찮아 보이는 과부를 무시했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찾아오자 귀찮아서 그녀의 소원을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는 대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에워싸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을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지치더라도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분의 자비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SINCE 1975

No. 50 - 08

2024. 02.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